



# Korea



정당민주주의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 ICAPP ++ 독일 교육 연구부 사관 장관 ++  
사회적 시장경제 ++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 민주시민교육 ++ 평화 활동가 ++ KAVKAS ++

## 정당민주주의와 정당재단의 역할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에서는 지난 해 하반기를 돌아보고 그간 진행해온 중점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요약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데나워 재단이 한국에서 '뉴스레터'를 처음 선보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데나워 재단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남북한 화해 협력에 기여하고자 활동해 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재단의 중점업무로 추진될 것입니다.

저희 재단은 올해도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6자회담의 재개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주고 있으며, 이것이 평화의 길로 가는 탄탄한 초석을 놓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르크 지맥

지난 2006년 12월 18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는 KAVKAS(한국 콘라드 아데나워 학술 교류회)와 함께 정치인, 정부관계자, 학자, NGO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당민주주의와 정당재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의 주목적은 독일 사례 발표를 통해 독일에서의 정당민주주의와 정당재단의 역할을 조명하고 독일과 한국의 모델을 비교하여 한국 정당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마련해 보고자 함이었다.

이에 정당민주주의 분야의 전문가인 카르스텐 그라보프 박사(독일의 사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두철 교수가 한국의 상황을 발표한 가운데 유재건 의원(열린정책연구소 소장, 제17대 국회의원), 임태희 의원(여의도연구소 소장, 제17대 국회의원)이 한국 양대 정당 연구소의 대표로서 토론에 참여했으며 임채정 국회의장이 축사를 전달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언론에 큰 반



좌측부터: 심익섭 교수, 카르스텐 그라보프 박사, 박재창 교수

향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100여 명이 넘는 참가자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또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는 그라보프 박사와 함께 '정당민주주의와 정당재단의 역할'이라는 동일한 주제로 여의도연구소(한나라당 정당연구소)와 열린정책연구소(열린우리당 정당연구소)에서 각각 연구원들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가졌다. 독일에서의 정당재단의 역할과 한국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그 주된 내용을 이루었으며 특히 정치교육에 대한 의견을 활발히 교환했다.



좌측부터: 김기은 교수, 자명제 교수, 강원택 교수, 마르크 지맥 소장, 카르스텐 그라보프 박사, 임태희 의원(여의도연구소), 유재건 의원(열린정책연구소), 박재창 교수, 신두철 교수, 성현용 기자, 심익섭 교수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 유럽 연합과 대한민국의 관계정립을 위하여

2006년 9월 28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초청으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마르크 치백 소장의 동행 하에 브뤼셀과 독일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유럽통합과 유럽공동의 안보정책, 독일통일

통합과정에서 독일의 주도적 역할은 한국에 귀감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덧붙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핵문제 해결 이후에도 동북아 안보와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동북아 안보협의체'로 발전시키고 '동북아개발은행'과 '동북아 안보협의체'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동북아안보경제공동체(NEASEC: North East Asian Security Economic Community)'라는 포괄적 다자협력체로 확대 구성할 것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아카데미에서 연설 중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과정 및 독일의 정당, 교육, 외교정책에 관한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의견을 교류하고 남북한 상호접근과정에서의 유럽의 역할을 모색함에 있었다.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남북한이 화해하며 한국의 민주화를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독일의 경험과 교훈을 얻고자 했다. 이번 방문의 핵심은 무엇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와의 회동과 베를린에 위치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에서의 연설이었다.

2006년 9월 29일 '독일과 한국: 함께 열어나가는 미래'라는 주제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에서 연설한 박근혜 전 대표는 한국과 독일의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특히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은 모두 경제와 복지 성장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라 거듭 강조했다. 또한 6.25전쟁 후 독일의 재정지원이 남한 전후 복구과정에 큰 기여를 했으며, 독일 통일과 유럽



빌프리트 마르텐스 박사(유럽인민당 대표)와의 브뤼셀 회동장면

제안했다.

또한 3일간 계속된 유럽방문 기간 동안 박근혜 의원은 로타르 메지에르(전 동독 총리), 빌프리트 마르텐(유럽인민당의원), 제이미 패트릭 쉬아(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책실장), 헤르만 드 크루(벨기에 하원의장), 게르트 뮐러(독일 하원의원), 하르트무트 코석(독일 하원의원),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대표 베른하르트 포겔 교수와의 만남을 가졌다.



베른하르트 포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대표로부터 영접을 받은 박근혜 의원과 그 사절단. 왼쪽부터: 게르하르트 빌러스 박사, 최경환 의원, 심재업 의원,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베른하르트 포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대표, 아모스 헬름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아시아담당관, 김기천 전 법무장관, 마르크 치백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 제4차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이라는 주제로 지난 2006년 9월 총 36개국 90여개 정당대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는 여야의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호세 데 베네시아(ICAPP 상임위원장 겸 필리핀 하원의장), 김근태(열린우리당 의장), 강제섭(한나라당 대표) 등 아시아 각국 주요 정치인들이 참가하여 그 열기를 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에서의 안보’와 ‘정치안정’, ‘빈곤감소와 국가버너스(Good Governance)’ 등의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무엇보다 미래 아시아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교환과 앞으로 아시아 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공동의 가치와 의지를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최초로 여성 정치인들의 주최로 위크숍이 열려 더욱 빛을 발했으며 활발한 의견교환을 위해 홈페이지도 운영했다.

이번 회의에 콘라드 아데나워



좌측부터: 콜린 뒤르코프 박사(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싱가포르사무소), 키티 린세 교수(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독일본부), 마르크 지백 소장(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재단은 발기인이자 조직위의 일원으로 또한 옵서버로 참가했다. 독일에서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의 설립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키티 린세 교수(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전 총재)가 옵서버로 초대되었다.

아시아 지역 내 정당간 심도 있는 정치적 대화를 가능케 하고 의견 교환과 협력, 신뢰의 주춧돌을 쌓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

은 이번 회의는 싱가포르 사무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으며, 한국사무소가 지원했다. 이번 회의는 테러리즘과 빈곤,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아시아 각국 정당이 공동 대처하고 궁극적으로 아시아 공동체를 건설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제4차 아시아정당국제회의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다음 회의는 2008년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 2006 개막식

## 아네트 샤반 독일연방 교육연구부 장관 방문

한국과 독일 양국간의 신뢰와 이해증진 및 정당간의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아네트 샤반 독일연방 교육연구부 장관이 2006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방한했다.

이번 방문단에는 독일 하원의원 들뿐만 아니라, 독일 학술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그 무게를 더했다.

특히 샤반 장관은 이번 방문의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독일 - 연구개발 파트너로서의 미래’ 라는 캠페인을 설명하는데 긴 시간을 할애했으며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과 11월 2일 회동을 가진데 이어 야당인 한나라당 지도부와도 만남을 가졌다.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 한



좌측부터: 마르크 지맥 소장, 노베르트 바스 주한 독일대사, 황진하 의원, 일세 아이그너 독일 하원의원, 아네트 샤반 독일 교육연구부 장관, 강제섭 한나라당 대표, 크레처 독일 하원의원, 황우여 의원

국사무소는 한나라당 강제섭 대표, 황우여 사무총장, 황진하 국제위원장 등을 초청하여 한나라당 지도부와 아네트 샤반 독일연방 교육연구부 장관의 만남을 주선했다. 이번 만남은 한국과 독일의 정치적 사항, 민주주의적 가치, 교육개혁에 관한 심

도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

샤반 장관을 보좌한 미하엘 크레치머, 일세 아이그너 독일 하원의원과 주한 독일대사관 측에서는 노베르트 바스 주한 독일대사와 울리케 볼프 정무담당관이 함께 참석했다.

## 한국사회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시장경제

지난 2006 12월 14일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 한국사무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노베르트 바스 주한 독일대사가 개최를 선언하고 있다.

와 한국사회의 대안적 발전방향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1997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초래된 전통적 가치와 사회시스템의 급격한 변화와 한국사회에 새로운 사회 경제 모델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이번 심포지엄 개최의 주요 배경이었다. 미래 한국사회

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기본적인 정책들의 합의 도출을 지원하며 동시에 유럽의 대안적 모델을 소개함으로써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현 한국사회에 만연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제시되었으며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히 진행되었다. 요르크 빈터베르그 교수가 초대되어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소개했으며 한국측에서도 정치, 경제, 미디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노베르트 바스 주한 독일대사(사진)가 개최사를 했으며 심포지엄에 이어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한국의 대표적 경제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에서 그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요르크 빈터베르그 교수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 상호접근은 화해를 위한 첫 번째 발걸음

2006년 하반기 동안 본 재단은 파트너 단체인 평화재단과 ‘화해와 상호접근 과정 강화’라는 명제 하에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했다. 최근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듯 총 5개로 구성된 세미나에는 이례적으로 총 1,293명이나 되는 많은 수의 참가자들이 함께 했다.



북한 이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북한의 실상에 대한 토론회 분석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상호의견 교환과 북한 내 인권사항에 관한 의문점들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들의 합의를 찾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또한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여러 국가의 주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를 계기로 10월 중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한 전문가포럼이 개최되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실상에 대한 종합적 묘사를 통해 우리가 갖고 있던 북한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의문점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전문가들과 방청객들은 폐막을 앞두고 이구동성으로 이런 논의가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인식의 재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 역시 사라져야 함을 강조했다.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강행한 2006년 10월 이후, 지난 몇 개월간 많은 변화들이 있었으며 강력한 조치가 내려짐과 동시에 현재와 같은 문제들이 초래되었다.

이어진 두 번의 특별 세미나에서는 한반도 내 경협사업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관한 학술적 논의뿐만 아니라 햇볕정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토론에 참석했던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한국 국민들이 심적 동요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또한 참가한 정치, 정부 관계

자뿐만 아니라 NGO활동가들이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과 현 대치 상황을 빠른 시일 내에 돌파해야 함을 입을 모아 강조했다.

12월 말에 있었던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대책과 그 결과’라는 주제로 열린 전문가포럼에서는 북한의 현 상황을 분석했다. 현재 북한에 다시금 식량난이 예상되고 있다. 남한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2006년 여름 홍수 (사단법인 좋은벗들에 따르면 약 150만 명이 피해를 입었



2006년 7월 서울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던 평화재단의 토론회

으며 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4000여명이 실종되었다고 함) 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 새터민, 민주주의 가치에 눈을 뜨다.

남북한 상호접근과 화해과정은 2006년에도 역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중점사업이었다. 통일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6년 10월 북한을 이탈해 남한에서 살고 있는 탈북 입국자가 9,200명을 넘어섰으며 이 수치는 매달 평균 150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전의 삶과는 매우 다른, 새터민들에게는 아직 친숙하지 않은 민주주의적 권리와 의



무라는 개념이 이해되어야만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 사회와 정부도 역시 새터민의 통합과 포용은 해결해야 할 큰 과제라 여긴다.

새터민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남한 사회로의 진입을 도와주는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울타리 속에 보호를 받으며 남한 사회로의 편입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남한 내에 존재하는 편견, 차별, 적대적 감정들은 남북한의 상호 접근을 출발에서부터 가로막고 있으며 이는 통일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통합과정상의 문제들마저 예측하게끔 한다.

안타깝게도 탈북자들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이고도 효과적인 통합정책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지 않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는 2006년 8월부터 새터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탈북자 연합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전문기관인 에듀플랜에 이를 위탁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개념을 흥미로운 게임과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을 통해 스스로 그 개념을 인식하고 남한사회로의 편입을 용이케 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여섯번의 교육세미나와 두 번의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올해에도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새터민들은 자신이 북한에서 받은 육체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상처들로 다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고행에 직면하는 사회적 장애물들이 남한 사회로의 편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새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적극적인 참여와 그

roup활동을 통한 교육은 ‘민주적’ 남한사회 내에서의 일상에 대한 모의 경험을 가능케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터민들에게 남한과 북한에서의 행동양식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스스로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간혹 이 과정에서 몇몇 새터민들이 부담을 갖기도 하고 세미나 과정에서 수 십 년간 북한체제 속에서 억제된 개인주의와 준비정신과 의사소통 능력의 부재로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새터민 교육을 총괄하고 진행하는 에듀플랜은 정치교육을 특화한 단체며 1999년 콘라드 아데나워 한국사무소에서 마련한 독일 정치교육 방법론과 교수법을 배우기 위해 방독했다. 새터민에 대한 수년간의 경험과 이를 통해 축적된 지식은 오늘날 많은 새터민들이 자연스럽게 남한사회에 편입하는데 도움을 주고 질 높은 민주주의 교육으로서 결실을 맺고 있다.



새터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다.

## 2006 한국평화활동가 워크숍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한국 내 NGO 활동가들 및 평화운동가들을 위한 워크숍이 제주도에서 열렸다. 50여 개가 넘는 단체들에서 약 120명의 활동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가 후원하고 파트너 단체인 평화포럼이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모임에서는 무엇보다 평화운동가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한반도 평화운동의 현황을 점검하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나감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번 워크숍은 다음과 같은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진행되었다.

1. 한반도 내 설정 가능한 평화시나리오 구축
2. 한국 평화운동의 현황과 과제 인식
3. 토론을 통해 실제적인 미래의 분야별 활동계획 수립

정치적 견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이끌어 냈다는 점은 높게 평가 받을 만하며 이번 워크숍의 결과물은 장차 한반도 내 평화운동에 있어 초석이 되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덧붙여 이러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길 자료집 역시 한국 평화운

동의 중요한 자료로 남게 되길 소망해본다.



제주도에서 열린 2006 평화활동가 워크숍 참가자들

## 헤르만 헤세와 독일을 향한 애정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장학생을 소개합니다

유년시절부터 김기은 교수는 헤르만 헤세와 막스 베버의 작품을 통해 독일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고 그녀가 접한 다양한 문학작품은 독일을 향한 동경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한국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한국 콘라드 아데나워 학술교류회 (KAVKAS)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장학생들의 모임이다.

배출한 약 200여 명의 장학생들 중 한 사람인 김교수는 현재 서경대학교에서 생명공학을 강의하고 있다. 그녀는 독일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대학 재학 중 2년간 독일문화원에서 독일어를 공부했다. 그녀는 1980년 천주교 재단인 크레펠트의 지원을 받아 베를린 공과대학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4년 뒤 김기은 교수는 장학금 신청을 위해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문들 두드렸다. 수 많은 경쟁자들 중 그녀는 특유의 성실함과 그동안 쌓아온 독일어 능력 덕분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전 유학과정에 걸쳐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1991년 귀국하기까지 김교수는 베를린과 글래스고우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귀국이라는 거,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더군요.” 김기은 교수는 당시를 너무나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불확실함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그녀는 고국에서 새로이 자신의 성공기를 써내려 가리라 다짐하고 한국으로 향했다. 그동안 지나온 험난한 여정들과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김교수는 너무나 뿌듯하게 생각한다. “전 한 번도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 받거나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적이 없었죠.” 다른 대부분의 주위 동료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녀의 눈에 비친 독일은 철저하며 융통성 있는 사회였고, 이는 그녀가 독일에서 배

KAVKAS는 한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연구와 관련된 분야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200여명이 넘는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이는 또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에 속한 가장 규모가 큰 장학생들의 모임으로 꼽히고 있다.

운 중요한 사실 중 하나였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김교수는 여전히 독일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 받고 있으며 아직 독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그녀에게 힘들었던 유학시절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으로부터 받은 많은 도움과 지원뿐만 아니라 깊은 믿음에 감사한 마음이 앞서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김교수는 그간 많은 도움을 받았던 독일에 무언가 돌려주고 싶어한다. 그녀는 지금 콘라드 아데나워 학술교류회 사무총장이다.

## 대화를 나누고 있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옛 장학생들



대화중인 박준근 교수, 이우균 교수, 이기수 교수



귄터 린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전 총재와 폴린 뒤르코프 박사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상가톨릭사무소)



열린정책연구소 소장과 대화중인 KAVKAS 회원들



KAVKAS 회원인 오준근 교수가 카르스텐 그라보프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KAVKAS 회장인 심익섭 교수



심포지엄 후 KAVKAS 회원들의 송년회 모임



## 한국사무소와 팀원들을 소개합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 한국사무소는 많은 일을 했다.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마르크 치벡 대표가 새로 부임한 이후 사무실에 소규모 행사를 치를 수 있는 회의실이 마련되는 등 내부 인테리어를 바뀌는 등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 정기간행물 디자인을 통일시켜 파트너 단체들과 진행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미 5권의 정기간행물이 발간되었다. 2006년 11월을 기점으로 한국사무소는 인턴쉽 프로그램을 시작해 다양한 프로젝트에 인턴사원들이 참여함

으로써 실무업무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무소의 사업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런 젊은 열정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다양한 경험을 쌓은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 학술교류회의 수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 한국사무소는 현재 마르크 치벡 소장(2006년 6월 부임)과 이승구 간사(2006년 6월 부임)가 함께 이끌어나가고 있으며 심상주, 마티아스 코르프, 마티아스 악스. 이렇게 세 명의 인턴사원들이 힘을 보태주고 있다.



좌측부터: 마티아스 악스(인턴), 이승구(간사), 마르크 치벡(소장), 심상주(인턴), 마티아스 코르프(인턴)

##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 정기 간행물

### 정당 민주주의와 정당제도의 역할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 정기간행물 Nr.1 (한국어/ 독일어)

### 주민 자치센터 기능별 성과 조사 보고서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 정기간행물 Nr.2 (한국어 /영어)

###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한국사회의 대안적 발전방향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 정기간행물 Nr. 3 (한국어/ 독일어)

### 활동가들이 나누는 한국 평화운동의 과제와 전망

콘라드 아테나워 정기간행물 Nr. 4 (한국어)

### 북한 핵실험이후 남북관계의 전망과 대응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 정기간행물 Nr. 5 (한국어)

###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어 / 영어)

### 리인강의 기적을 일구낸 사회적 시장경제

독일 경제정책 A 에서 Z 까지 (한국어 번역)

→ 모든 간행물들은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2007년 한반도에서 전개될 상황들은 대북관계와 12월에 있을 대선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매 분기별로 발행될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뉴스레터에서는 여러분들께 한국 정치 상황의 변화와 관련된 최신 소식뿐만 아니라 저희 재단에서 주최 또는 후원하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www.kas.de/korea](http://www.kas.de/korea)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 Newsletter Korea

### 책임자

마르크 치벡

### 편집

마르크 치벡, 마티아스 악스, 마티아스 코르프, 심상주

### 발행방식

계간지

### 레이아웃

마티아스 악스, 마르크 치벡

### 주소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4-1  
수영빌딩 301호

### E-mail:

[kas@kaskorea.org](mailto:kas@kaskorea.org)

### 홈페이지:

[www.kas.de/korea](http://www.kas.de/korea)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정기 간행물



###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비전과 발걸음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간행물 6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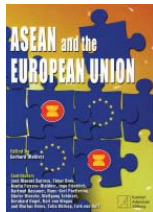
2006년 하반기에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비전과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4개의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통일 후 나타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와 사실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언급하고 분석했다. 파트너 단체인 평화재단과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책으로 만들게 되었다. (한국어)



###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과 대응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간행물 5 (2007)

북한 핵실험 이후 온 나라와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이런 시점에서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한반도에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것인지, 또 이런 긴장국면 속에서도 고통 받고 있는 2천만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과제를 가지고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평화재단의 주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책은 이에 대한 주요내용들을 담은 보고서이자 자료집이다.



### ASEAN and the EUROPEAN UNION

기고가: 호세 마누엘 바로소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엘마 브록 (유럽연합 국제관계위원장), 베니타 페레로 발드너 (유럽연합 대외관계 집행위원), 잉고 프리드리히 (유럽의회 부의장), 하르트무트 나사우어 (유럽의회 내무위원장), 한스-게르트 페터링 (기독교민주 유럽인민당 회장), 귄터 린셰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전 총재), 볼프강 쉬셀 (유럽이사회 의장), 베른하르트 포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총재), 칼 폰 보가우 (유럽 안보 및 방위 분과위원회 의장), 마르쿠스 아렌스 (유럽 인민당 카운셀러), 콜린 뒤르콕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싱가포르 대표부 소장), 팔크 폰 호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정세 속에서 아세안과 유럽연합은 25년째 파트너로서 함께 해왔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필요성은 동시에 서로에 대한 더 많은 정보교류와 활발한 관계, 그리고 상호간의 교류에 대한 갈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책에서 유럽 이사회, 유럽 위원회, 유럽 의회의 저명한 인물들을 통해 독자와 함께 이러한 기관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이 책은 유럽 내 중요 기관들에 관한 필수 참고서적인 동시에 유럽내의 파트너들과 접촉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유용한 핸드북이 될 것이다.



### 활동가들이 나누는 한국 평화운동의 과제와 전망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간행물 4 (2007)

2박3일간 제주도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 NGO 활동가들과 평화운동가들은 ‘한반도 평화 시나리오’와 관련, 의견을 나누고 ‘한국 평화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가졌다. 참가자 전원 이 저자로 참여한 이 자료집이 훗날에도 좋은 참고가 되어 감히 평화운동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되길 기대해 본다.



### 사회적 시장경제

이 책은 독일과 유럽 국가들의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찬된 사전입니다. 인명사전과 용어사전으로 구성된 본 사전은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적 시장경제상의 각종 상호관계들을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기고를 통한 내용의 전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 사전이 사회학 및 경제학에 대해 깊이 알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